

지역 매 아리

김제보건소, 추석 성수식품 점검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이 다가옴에 따라 2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105개소) 및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40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반(12명) 점검팀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해 무표시, 유통기간 경과, 허위과대광고,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침가루, 참기름 등의 가공품·식용유지류와 홍삼정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와 전통시장 앞에서 식중독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용환씨, 저소득층 아동 쌀 기부

김제 청하면 '농업회사법인 두레마을' 김용환 대표는 지난 1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전해달라며 햅쌀 10kg짜리 50포를 드림스타트센터에 전달했다.

평소 '농업회사법인 두레마을' 김용환 대표는 김제 10인 농부회(대표 차연수)가 생산한 쌀, 잡곡, 찹쌀 등을 판매해, 조합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능기부 및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김용환 대표는 "앞으로 드림스타트에도 아동들을 위해서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두레장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완주군이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71분) 70억원 부과, 11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8년 재산세는 7월과 합산 총 126억으로 지난해 117억보다 7.4%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주택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기한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본인명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풍경있는 농산촌 가꾼다

도 사업 2년 연속 선정
봉동읍 상구미 마을
수목식재·마을벽화 지원



12일 완주군은 지난해 완주 고산촌마을에 이어 2년 연속 전라북도가 주관한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에 봉동읍 상구미 마을이 선정됐다.

완주군이 2년 연속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에 선정됐다.

12일 완주군은 지난해 완주 고산촌마을에 이어 2년 연속 전라북도가 주관한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에 봉동읍 상구미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풍경있는 농산촌가꾸기 사업은 전복도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촌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25개 마을에 5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선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수목식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마을을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봉동읍 상구미 마을은 주민 60여가구가 모여살고 주변에 우산천이 흐르는 곳으로 풍물을 배우

며 마을모임을 갖고, 마을벽화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공간을 만들어 가는 곳이다.

봉동읍 상구미 마을은 사업선정으로 마을 진입로, 방치된 유휴공간, 마을회관 주변 등 정비가 필요한 공간에 마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경관수와 소등을 올릴 수 있는 과실수 등 마을에서 희망하는 수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식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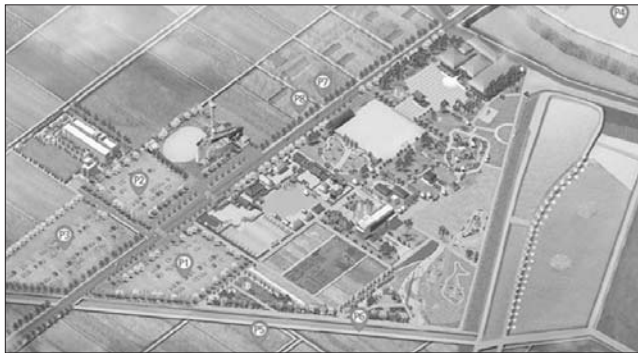
박성일 완주군수는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사립찾는 농촌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고산촌마을은 마을 진입로, 방치된 유휴공간, 마을회관 주변 등 정비가 필요한 공간에 마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경관수와 소등을 올릴 수 있는 과실수 등 마을에서 희망하는 수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식재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축제장 오시는 길 더 편하도록”

김제시 교통체계 개선 노력
주차장 확대·셔틀버스 등



김제 지평선축제 주차장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의 관광객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오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축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노력으로 부량면 재해지역(구)포교마을 이주 단지에 1,20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포교마을 주차장에서 보다 가깝고 안전하게 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원형천 둔치에 부교를 설치 할 예정이다.

또한 지평선주차장을 포함한 유료주차장 3곳 1,380대, (신)국도29호선 등 무료주차장 5곳 3,260대, 벽골제가든 입구의 대형버스 주차장 등 약 6,000대 동시주차 가능하도록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료주차장(지평선, 청룡, 백룡) 주차 비용 5,000원 중 2,000원을 축제장 농·특산물 구입권으로 돌려주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농·특산물 구입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유료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동안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는 6개 노선 22대를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휴일에는 최대 30대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입석사거리~아리랑문화마을 삼거리~6.25 참전기념탑 구간은 셔틀버스 전용차선제를 도입,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보다 빠르게 축제장에 도착 할 수 있다는 홍보로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제장까지 들어오는 교통체계 개선 노력으로 만족도가 축제장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평선축제를 믿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해 더 만족스러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벽골제 및 시내권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전통농경문화 체험 행사를 중심으로 5개 분야 66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관광객들에게 가을날 멋진 추억과 낭만을 선사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벨로스터 타고 방방곡곡 누비자”

현대차, 렌탈시승 이벤트
이달 30일까지 참가 신청



“현대자동차 벨로스터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여행 떠나요!”
현대자동차(주)는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Frip)'과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벨로스터 3박 4일 렌탈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

12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청명한 가을을 맞이해 준비된 이번 이벤트는 현대자동차의 인기 모델인 벨로스터를 3박 4일간 체험해보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의 테마 여행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테마 여행은 ▲단양 액티비티 여행 ▲전주 로맨틱 여행 ▲춘천 힐링 여행으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 '테마 한복 대여권', '제이드가든 수목원 입장권' 등 각 테마에 어울리는 액티비티 상품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12일부터 30일까지 프립 애플리케이션에 마련된 '벨로스터X프립 시승 이벤트' 기획전 섹션에서 원하는 테마, 희망 차수, 사연 등을 입력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렌탈 시승 이

벤트에 벨로스터 28대를 운영하며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3차수에 걸쳐 총 84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일 개별 문자를 통해 진행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벨로스터와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도록 '프립'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프립'과 함께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출시된 신형 벨로스터는 스포티하고 스타일리시한 비대칭의 유니크 디자인과 함께, 펀 투 드라이브(FUN TO DRIVE, 운전의 재미)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주행성능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농산물 품질·안정성 확보 만전

교월동 주민 대상 PLS 교육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는 지난 10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 PLS(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PLS(Positive List System)란 국내 사용 등록이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이번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지원 담당 주무관을 초청해 아직까지 농가들에게 생소한 용어인 PLS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으로 PLS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적절한 농약 구입 및 농약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병의 작은 글씨를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돋보기를 배부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을 지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차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된 농약 사용하지 않기 등 주의사항을 전달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PLS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위해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우리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 眞心